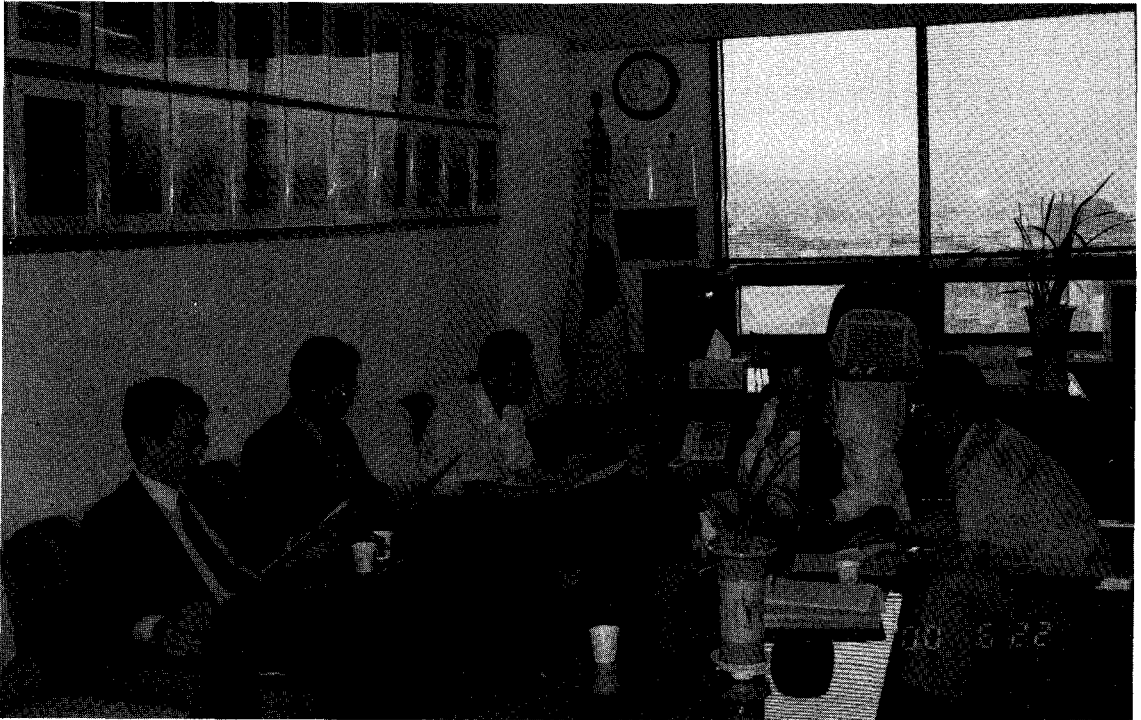


사슴 수매가 「논란」



△지난 6월 22일 본회, 양록조합, 양록유통연합회 등 양록 3개단체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정부의 이동제한 지역내 구제역 백신접종 사슴수매가격 변경지침에 대한 대책을 숙의했다.

이날 모임에서 정부의 수매가격 변경 지침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의견을 함께하고 사슴시세를 폭넓게 조사하여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의 수매의지를 의심케하는 조정가격 철회 △예방접종으로 인한 유·사산 자육과 사고육의 보상이행 △백신접종 사슴과 일반사슴(비발생지역 사슴)과의 가격차액 보상 등을 정부당국에 건의하기로 했다. 여기에 소개되는 내용은 축산신문 7월18일자에 보도된 것으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상중계한다.

구제역 발생에 따른 정부의 사슴 수매가격에 대한 양록농가들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수매가격 현실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기존에 제시한 수매가격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양록농가들과 협회 등 관련업계는 구제역으로 인한 살충가축의 보상 및 보호지역내 예방접종 우제류 가축인 소 돼지는 시가대로 수매

하고 있는 반면, 유독 사슴의 경우 실제 거래 가격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농림부는 지난 4월 11일, 협회가 제시한 당시 품종별 성별 성육에 대한 상·하한가의 평균가격을 상한가로 산정해 꽃사슴은 수컷 1백25만원 암컷 70만원, 레드디어 수컷 1백75만원 암컷 90만원, 엘크 수컷 8백50만원 암컷 3백25만원으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 지난 6월 8일에는 수컷은 녹용이, 암컷은 자록의 생산이 끝난 만큼 수매가격 하향 조정이 불가피 하다가 꽃사슴 수컷 70만원 암컷 40만원, 레드디어 수컷 70만원 암컷 50만원, 엘크 수컷 4백40만원, 암컷 1백18만원으로 상한선을 책정한 바 있다.

◇ 사슴수매 상한가격 변동내역(성륙기준)

(단위 : 만원)

	꽃 사 슨		레드디어		엘 크	
	암	수	암	수	암	수
변경전	70	125	90	175	325	850
변경후	40	70	50	70	118	440

이에 대해 양록협회는 정부가 백신을 접종한 가축에 대해 수매 희망시 현시가대로 전량 수매한다는 방침을 발표하고도 4월 11일 가격은 실거래 가격 보다 11~20%가 낮게 책정됐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나마 당월 21일 수매지침까지 통보해 놓고 수매를 기피하다 6월 8일 정부가 다시 발표한 가격의 경우 협회는 물론 양록조합 및 양록유통연합회 등 3개단체가 양록인들과 유통인들을 대상으로 이에대한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실거래 가격과의 차가 적은 것은 35%선에서 큰 품목은 무려 100%를 넘게 벌어져 있는 만큼 「현시 세대로 수매」라는 약속을 정부 스스로 위약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소 돼지는 시가대로 수매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양록농가들은 제외된 채 접종축의 유·사산 자록에 대한 보상과 학자금 및 경영자금 지원등 각종 혜택을 주고 있으나 사슴은 가격까지 임의 조정해 오히려 정부가 제시한 가격으로 인해 수매대상의 지역의 사슴가격 하락도 유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는 결국 양록농가들의 2차 백신접종 거부를 초래, 청정지역 선포에 큰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현시가 수매와 함께 구제역으로 발생한 피해는 타가 축과 같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외관련 농림부 주최로 지난 7월 10일 관련생산자 단체장들이 동석한 가운데 열린 구제역 대책 추진상황 보고회에서 양록협회가 위와같은 사실을 언급하자 농림부측은 『일단 수매가격 변동은 있을 수 없다』며 강행의사를 밝히고 『다만 백신접종시 유사산 발생에 따른 보상금 지급과 경영자금 지원금 등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한 참석자는 전했다.

이에대해 양록협회의 한 관계자는 『농가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부의 현실화된 수매가격 제시와 각종 지원이 이뤄짐으로써 자발적으로 농가들이 백신접종에 참여하고 협회도 이를 독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詩가 있는 미당

묵상 · 8

천 양 희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수없이
말하고
가지 말아야 할 곳 수없이
걸어가고
버려서는 안될 것
수없이 버렸습니다
사랑 하나에도 목숨걸지
못하고
진실 하나에도 깃발 들지
못하고
아무 것도 내놓지 않는 세상
원망했습니다
혀끝으로 수없이 맹세하며
혀끝으로 수없이 배반하며
혀끝으로 수없이
거짓을 보냈습니다